

대학도서관 외부이용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xternal User Services in University Libraries

정 대 근(Dae Keun Jeong)*

사공 복희(Bok Hee Sakong)**

< 목 차 >

- | | |
|-----------------------|-------------------------|
| I. 서론 | 2. 국내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 현황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II. A대학도서관 외부이용자의 이용실태 |
| 2. 연구의 방법 | 1. 외부이용자의 현황과 특성 |
| 3. 선행연구 | 2. 외부이용자의 자료이용 |
| II.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 현황 | IV. 외부이용자 제도의 개선방안 |
| 1. 국외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 현황 | V. 결 론 |

초 록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의 개방이 대학도서관의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부이용자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 이용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개방으로 인해 대학도서관이 직면하게 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외부이용자에 대한 회원제제도의 도입,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자원공용을 위한 협정체결로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역할 분담, 외부이용자에 대한 이용자교육 강화, 외부이용자에 대한 출입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외부이용자, 대학도서관, 도서관개방, 지역사회

ABSTRACT

Opening university library doors to the community is essential to meeting their demands and it is also the duty of university libraries. Since opening doors of university libraries have become more and more significant, this study analysed the conditions of the university libraries that have the open-door policy to external users and carried out an analysis of problems caused by the open-door policy. The following alternatives were suggested : the introduction of the membership system about the external users, the role division of university library and local public libraries, reinforcement of external library user education, and access management about external users.

Keywords: External User, University Library, Open Library, Community

*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jdk1319@nate.com)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bhsakong@chonnam.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0년 11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6일 • 최종심사일: 2010년 12월 24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에 의하면,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3조, 2항)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도서관 평가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이 대학도서관 특성화 평가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을 만큼 오늘날 대학도서관의 지역주민 개방에 대한 요구 및 그 필요성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시대적 요청이며, 대학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내부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내부구성원이 아닌 외부이용자에게까지 그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도서관에 대한 개방은 1960년대 미국의 대학도서관 개방으로부터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의 대학도서관 개방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도서관 개방이 활발해졌다. 대학은 대학도서관의 개방으로 전문성을 지닌 학술자료를 대학 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그 이용을 확대하고, 그로 인해 대학의 폐쇄성에 대한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며, 각 지역의 학술자원지원센터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고자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국립대학도서관은 물론 사립대학도서관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러한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자원공유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 으나,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된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도서관 업무의 과부하, 일차적 이용자집단에 대한 불이익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서관을 개방했던 일부 대학도서관은 문제 점이 발생하자 개방을 철회하고자 하기도 했다. 이는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에 대한 개방이 단순 한 이용자수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서비스 영역 의 확장은 내부 구성원에 대한 불이익 및 서비스 저하, 업무가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 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현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은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에 대한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이미 개 방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의 개방이 대학도서관의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부이 용자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 이용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개방으

로 인해 대학도서관이 직면하게 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도서관 개방의 범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과 외부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 접점을 찾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대학도서관의 개방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에 나타난 대학도서관 외부이용자들의 개방요구, 개방현황, 개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 대학도서관 개방 시에 참조할 수 있도록 개방의 역사가 비교적 오랜 국외 대학도서관의 개방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2010년 U.S NEWS & World Report에서 제공한 세계 최고의 대학들 중 상위 10개 대학교 및 미국의 일부 주립대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이용자의 이용 조건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외부이용자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국내 대학도서관의 개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소속 대학 중에서 외부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증을 발급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외부이용증 발급 및 이용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였다. 외부이용자에게 개방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7년 5월과 2010년 5월에 동일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 전화면담을 통해 수행하였다.

넷째, 지역사회 개방으로 대학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도서관인 A대학도서관 외부이용자의 가입 및 자료이용과 관련된 특성을 분석하였다. 즉 이용증을 발급받은 외부이용자의 성별, 발급연령, 이용자 유형 등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용자 특성에 따른 해지유무, 이용기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외부이용자의 도서관 자료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외부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도서 대출권수, 대출권수 대비 연체율, 주요 대출 분야 등을 분석하였다.

현재 도서관 개방과 관련된 명칭은 외부이용자, 특별이용자, 시민 열람, 지역주민 회원, 지역주민 이용, 지역주민 도서관 회원제, 지역주민 자료대출 회원제, 특별열람, 도서관회원, 열린도서관 회원, 외부이용자 회원, 관외대출 회원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칭은 도서관 회원과 외부이용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일차적 이용자 집단인 학생 및 교직원 등 내부구성원에 대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서비스 범위의 확장 측면에서 대학도서관 개방을 다루고 있으므로 도서관 개방을 통한 이용자의 명칭은 대학 내부구성원과 외부구성원을 구분할 수 있는 외부이용자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국공립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외부이용자의 가입 및 자료 이용

과 관련된 특성은 국공립대학도서관인 A대학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도서관에 확대해서 적용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선행연구

대학도서관 개방에 관한 연구는 대학도서관 개방의 필요성에서부터 시작하여 개방 현황, 외부이용자의 이용 만족도 조사, 도서관 개방의 활성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 국외 연구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에 대한 개방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미국의 대학도서관은 1960년대부터 이미 외부이용자에게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고 대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¹⁾ 따라서 60년대 초부터 이미 개방에 관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연구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초창기 지역주민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개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와 대학도서관의 개방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개방으로 인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특히 미국 대학도서관들은 대학도서관의 일차적 이용자인 내부구성원의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유료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학도서관 개방에 관한 초기의 논문들의 대부분은 도서관 개방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Methodist 대학도서관 사서인 Stewart²⁾는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과 교수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대학도서관의 일차적 목표이지만, 일차적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모든 연령의 지역 주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의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대학에도 이익이 되므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eale³⁾은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은 지역사회의 문화의 질을 높임으로 대학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이 지역 공공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학교도서관 연합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Holm⁴⁾은 모든 도서관의 정보는 국가의 자원이고 모든 국민들은 그 자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대학도서관의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Methodist 대학도서관 사서인 Stewart는 이미 1962년 3월에서 1963년 2월까지 1년간 106권을 외부이용자에게 대출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Alva W. Stewart, "Open-door Policy," *Wilson Library Bulletin*, Vol.37, No.10(June 1963), pp.860-862.

2) 상계서.

3) H. V. Deale, "Campus vs Community," *Library Journal*, Vol.89, No.8(Apr. 1964), pp.1695-1697.

4) Bart E. Holm, "National Issues and Problems," In: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d. by Martha E. Williams(Washington, DC: ASIS, 1976), Vol.11, pp.5-26.

대학도서관 개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외부이용자에 대해 도서관을 개방한 기관에 대한 현황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대학도서관의 개방 초창기인 1967년에 Josey⁵⁾가 1,000여개의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개방현황을 조사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미 이때 조사대상 대학도서관의 95%가 외부이용자에게 관내열람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85%가 도서를 대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은 무료로 열람과 대출을 제공하고 있었다.

Russell 등⁶⁾은 대도시지역 대학도서관들의 외부이용자의 접근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보낸 26개 도서관 중에서 응답한 18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각 도서관이 외부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접근의 다양성, 깊이 및 유형을 조사하였다.

대학도서관의 개방과 함께 이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979년 Piternick⁷⁾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 대학도서관은 외부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자 제한된 도서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되었으며, 도서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고 외부이용자에게 일부 도서관 서비스를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후 최근까지 외국에서는 대학도서관 서비스의 유료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offman과 Josephine⁸⁾은 도서관에 시장경제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좋고 값싼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된 접근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유료화를 제안하였다.

Mitchell⁹⁾은 미국 내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에 대한 대출정책을 조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49개 도서관 중 30개의 도서관이 외부이용자에 대해 요금을 받고 있었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개개 대출자에게 연회비를 부담하는 것이었으며, 연회비 대신에 4개월, 6개월 간격으로 회비를 받기도 하고 이용시에 요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Nicewarner와 Simon¹⁰⁾은 네바다 지역의 유일한 주요 대학도서관인 네바다 대학도서관이 네바

-
- 5) E. J. Josey, "Community Use of Academic Libraries : A Symposium : Implications for College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28, No.3(1967), pp.184-202.
 - 6) Ralph E. Russell et al., "External User Access to Academic Libraries in Urban/Metropolitan Areas," In: *Academic Libraries in Urban and Metropolitan Areas: A Management Handbook*, ed. by Gerard B. McCabe (New York : Greenwood, 1991), pp.27-32.
 - 7) Ann B. Piternick, "Problems of Resources Sharing with the Community,"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5, No.3(July 1979), pp.153-158.
 - 8) Steve Coffman and Helen Josephine, "Doing It for Money," *Library Journal*, Vol.116, No.17(Oct. 1991), pp.32-36.
 - 9) Eugene S. Mitchell, "General Circulation Policies for Private Citizens: The Practices of Publicly Supported Academic Libraries," In: *Academic Libraries in Urban and Metropolitan Areas: A Management Handbook*, ed. by Gerard B. McCabe(New York : Greenwood, 1991), pp.33-44.
 - 10) Metta Nicewarner and Matthew Simon, "Achieving Community Borrower Compliance with an Urban University Library's Circulation Policies : One University's Solution,"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다 남부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하여 대학도서관의 일차적 이용자인 학생과 교직원이 겪어야 하는 불이익과 도서관의 재정적 손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네바다 대학도서관에서 시행한 접근의 제한, 참고서비스의 유료화, 분실자료를 위한 신용카드 등록 등과 같은 해결책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다.

Claudette¹¹⁾는 Calgary 대학도서관이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외부이용자를 위한 요금 기반정보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한 과정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는 요금기반서비스는 무형의 이익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이익도 따른다고 하였다.

국의 대학도서관 개방에 관한 연구는 개방 초기에는 대학도서관 개방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연구가 일반적이었으나, 대학도서관의 개방이 일반화되어감에 따라 1990년대부터는 대학도서관의 개방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비스의 유료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대학도서관 개방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대학도서관의 고민도 함께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개방도 국외 대학도서관의 개방의 추이와 크게 다를 바 없으리라는 점을 생각하면, 국내 상황에 맞는 대학도서관의 개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나. 국내 연구

대학도서관 개방의 역사가 외국에 비해 짧은 우리나라에서도 개방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이미 오래 전에 있어왔다. 1974년 김남석¹²⁾은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해야 하며, 우수한 자료와 훌륭한 시설로 불충분한 공공도서관의 임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개방에 관한 연구는 90년대 말 고성순¹³⁾의 연구를 기점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대학도서관 개방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주장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윤희윤,¹⁴⁾ 진창남¹⁵⁾의 연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개방사례와 개방현황을 다룬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송영희,¹⁶⁾ 정병진¹⁷⁾의 연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이라는 주제는

Vol.22, No.6(Nov. 1996), pp.435-439.

11) Cloutier Claudette, "Setting Up a Fee-Based Information Service in an Academic Library,"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31, No.4(July 2005), pp.332-338.

12) 김남석, "지역사회를 위한 정보봉사에 관한 일연구: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학논집*, 제1권(1974), pp.17-30.

13) 고성순,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정보과학과, 1999).

14) 윤희윤,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을 말한다," *도서관문화*, 제44권, 제3호(2003. 5/6), pp.5-10.

15) 진창남,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담론," *도서관문화*, 제44권, 제3호(2003. 5/6), pp.11-17.

16) 송영희, "대학도서관의 특별이용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4호(2001. 12), pp.449-466.

17) 정병진,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개방: 원광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4호(2001. 12), pp.395-418.

2000년대 석사학위논문의 주요 주제로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박숙경¹⁸⁾과 이범준¹⁹⁾의 연구를 비롯하여 지역주민 이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과 양정은²⁰⁾의 연구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개방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 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대학도서관 개방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방 현황의 추이를 살펴보고, 또한 외부이용자의 가입 및 자료 이용의 실태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현실에 기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II.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 현황

1. 국외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 현황

미국의 대학도서관들은 1960년대에 이미 대학의 구성원이 아닌 지역주민에게까지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였으며 대출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미국 주립대학의 설립과정을 보면 미국 대학도서관 개방의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는데, 미국은 18세기 후반 독립전쟁 이후 실용적인 학문이 대학교육에 수용되기 시작하였고, 1862년 주마다 적어도 한 개씩 부지대여대학(Land Grant University)을 정부가 설립하였다. 여기서는 농학과 공학이 중심이 되었고, 나중에 지역의 산업과 직업교육이 결부된 주립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학의 교육과 연구가 그 지역사회의 산업개발과 결부되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²¹⁾

따라서 미국 주요대학들의 외부이용자에 대한 도서관 개방은 사립대학들에 비해 주립대학이 좀더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만, 도서관 개방으로 야기되는 문제들로 인해 주립대학 역시 상당수가 무료 이용보다는 유료 이용으로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U.S NEWS & World Report²²⁾에서 제공한 세계 최고의 대학들 중 상위 10개 대학교 및 미국의 일부 주립대학교를 중심으로 해당 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이용자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2010년 U.S NEWS & World Report에서 제공한 세계 최고의 10대 대학 중 미국에 속해

18) 박숙경, 대학도서관 개방에 따른 지역주민 이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2).

19) 이범준, 지역사회 주민의 대학도서관 이용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3).

20) 양정은, 국내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정보과학, 2005).

21) 岩猿敏生, 대학도서관의 관리와 운영, 박준식 역(대구 : 계명대학교출판부, 1997), p.28.

22) U.S NEWS & World Report Home page, <<http://www.usnews.com>> [cited 2010. 10. 25].

있는 6개의 대학의 외부이용자 정책을 살펴보면, 1위인 Harvard 대학교의 도서관²³⁾은 일부 분관 도서관은 대중에게 개방하나 대부분의 도서관은 개방하지 않는다.

Yale 대학교²⁴⁾는 외부이용자의 신분과 이용수준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신분에 따라서는 서고출입만을 위해서도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한 예로, 1일 \$10, 1개월 \$27, 1년 \$270), 대출을 위해서는 신분에 따라 1달에 \$65, 1년 \$710까지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Chicago 대학교의 도서관²⁵⁾은 협정을 맺은 타기관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는 기관에 따라 열람이나 대출을 허용하며, 지역주민에게는 5일까지 무료이용권을 준다. 또한 연구의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며 연구의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요청이 승인되면 7일간 \$15, 학기당 \$75를 내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MIT의 도서관²⁶⁾은 외부이용자에게서 1년 \$500, 6개월 \$350의 비용을 받고 있으며, 졸업생에게는 외부이용자보다 저렴한 1년 \$150, 6개월 \$90을 받고 있다.

Columbia University의 도서관²⁷⁾은 외부이용자가 열람시 1개월 \$55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대출시에는 1개월 \$100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졸업생은 1개월 \$30을 지불하여야 한다.

Caltech 도서관²⁸⁾은 협력대학의 교수는 이용가능하나 졸업생 및 UCLA나 USC의 대학원생은 6개월 \$25의 비용을 지불하고 대출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Harvard 대학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대부분의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으며, Chicago 대학교는 지역주민에게 상당히 제한된 접근만을 허용할 뿐이다. 나머지 대학도서관들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Kent 주립대학교의 도서관²⁹⁾은 16세 이상의 지역주민에게 대출을 허용하는데, 연간 \$30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Rutgers 대학교의 도서관³⁰⁾은 졸업생, 지역사회 대출카드 소지자, 상호대출협정이 되어 있는 타고등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수에게 대출을 허용하는데, 일반인은 연간 \$100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립대학인 USC의 도서관³¹⁾은 LA 지역주민은 6개월에 \$125, 기업회원은 6개월에 \$300의 이

23) Harvard Libraries Home page, <<http://lib.harvard.edu/libraries/visitor.html>> [cited 2010. 11. 10].

24) Yale University Library Home page, <<http://www.library.yale.edu/circ/>> [cited 2010. 11. 10].

25)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Home page, <<http://www.lib.uchicago.edu/e/using/access/public.html>> [cited 2010. 11. 10].

26) MIT Libraries Home page, <<http://libraries.mit.edu/ordering/p-cards.html>> [cited 2010. 11. 10].

27) Columbia University Libraries Home page, <<http://www.columbia.edu/cu/lweb/services/llo/borrowing/index.html>> [cited 2010. 11. 10].

28) Caltech Library Home page, <<http://library.caltech.edu/publications/borrowing.htm#COMMUNITY>> [cited 2010. 11. 11].

29) Kent State University Libraries Home page, <<http://www.library.kent.edu/page/10386>> [cited 2010. 10. 25].

30) Rutgers University Libraries Home page, <http://www.libraries.rutgers.edu/rul/lib_servs/guest.shtml> [cited 2010. 10. 25].

31) USC Libraries Home page,

용료를 받고 있는데, 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6개월에 각각 \$25과 \$50로 이용료를 할인해준다.

Austin의 Texas 대학교의 도서관³²⁾은 성인인 텍사스 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연간 \$100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의 기업회원은 연간 \$400을 지불하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5장의 대출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료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Illinois 주립대학교의 Milner 도서관³³⁾은 도서관카드를 발급받은 18세 이상의 일리노이 주민에게 무료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대학도서관들은 외부이용자의 신분에서 따라 다양한 요금정책으로 이용을 허용하지만 다른 곳에서 입수할 수 없는 자료의 이용이나 연구 목적의 이용 등, 대학도서관에서만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할 때 이용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Cambridge 대학교의 도서관³⁴⁾은 이용요청이 있을 때 다른 대학의 연구자들에게 열람을 허용하지만, 다른 대학의 학부생과 졸업생은 Cambridge가 방학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영국 외 대학의 이용자와 일반인은 6개월에 £1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Imperial College London의 도서관³⁵⁾은 외부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지만, 카드 신청시에 다른 곳에서 입수할 수 없는 자료이용과 같은 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 특별한 필요성을 밝혀야 한다.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도서관³⁶⁾은 이용자의 신분에서 따라 이용조건이 다양하다. 대출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영국의 다른 대학과 외국의 박사과정생과 교수는 열람만 가능하고, 외국학부생은 1일 £7, 1주일에 £20, 1달에 £30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열람가능하나 대출시 1년에 £3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타 외부이용자는 1일 이용권이 £10이다.

University of London의 Senate House 도서관³⁷⁾은 유료로 외부이용자 및 연구원들의 도서관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열람만 하고자 할 때는 1일 £6.15 또는 1년에 7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이용료 £30.75이다. 대출시에는 이용자의 신분에서 따라 6개월에 £82, 1년에 £128의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6개월에 £128 또는 1년에 £220.40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기업회원은 £686.75로 4개의 대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의 대학도서관은 대부분 대학구성원이 아닌 외부이용자에게 도서관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http://www.usc.edu/libraries/about/lending_policies/policies.php#affiliate [cited 2010. 10. 25].

32) University of Texas Libraries Home page,

<http://www.lib.utexas.edu/services/borrower/non-ut.html> [cited 2010. 10. 25].

33) Milner Library Home page, <http://www.library.ilstu.edu/page/236> [cited 2010. 11 .02].

34)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Home page, <http://www.lib.cam.ac.uk/usingthelibrary/> [cited 2010. 10. 25].

35) Imperial College London Library Home page,

<http://www3.imperial.ac.uk/library/usethelibrary/membership/public> [cited 2010. 10. 25].

36) University College London Library Home page,

<http://www.ucl.ac.uk/library/private.shtml> [cited 2010. 10. 25].

37) Senate House Library Home page, <http://www.ull.ac.uk/library/membership.shtml> [cited 2010. 10. 25].

그러나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모든 이용자에게 대해 무료로 도서관을 개방하기보다는 여러 유형의 신분 에 따라 다양한 요금체계로 이용료를 지불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외 대학도서관 은 도서의 분실 및 훼손을 보전하기 위한 예치금 제도는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외국의 대학도서관은 일차적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외부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서관 유료화가 상당 부분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는 다른 곳에서 입수할 수 없는 자료의 이용이나 연구 목적의 이용 등, 대학도서관에서만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할 때 이용할 것을 유도하거나 허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대학도서관 개방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개방에서도 충분히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2. 국내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 현황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도서관 평가에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이 대학도서관 특성화 평가의 주요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대학도서관의 지역주민 개방의 당위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이런 시점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학의 도서관은 사립대학도서관에 비해 더욱 거센 요구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외부이용자 개방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2007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서 전화면담으로 조사하였다. 2007년³⁸⁾ 조사에서는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소속 총 49개 도서관 중 31개(63%) 대학도서관이 개방하고 있었고, 2010년³⁹⁾에는 대학통합 및 신규가입으로 총 48개 도서관 중 32개(67%) 대학도서관이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7년 당시 외부이용자 이용증을 발급하고 있는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소속 31개 대학도서관 중에서 전화면담에 성실하게 응답한 23개 대학도서관인데, 외부이용자 이용증 발급 대상, 발급 주체 및 가능시간, 그리고 발급조건을 조사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이 외부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도서관서비스는 도서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서비스 유형인 대출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출권수 및 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2007년에 조사한 대학에 대하여 2010년에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발급 대상

조사대상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 이용증 발급에 있어 발급가능 지역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조사와 2010년도 조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38) 국립대학도서관보 2007년(2006년 12월 31일자)을 기준으로 2007년 5월 전화면담을 통해 조사했음.

39) 국립대학도서관보 2009년 12월 31일 기준.

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의 제한은 미미하지만 완화되고 있었는데, 소속 시에서만 가능하던 부분이 소속 광역시 및 도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 대학도서관이 나타났다. 발급가능 연령을 살펴본 결과 약 80%의 도서관에서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발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었다.

〈표 1〉 외부이용자 이용증 발급 가능 지역

구분	2007년	2010년
대학 소재 지역	22(95.65)	21(91.30)
전 국	1(4.35)	2(8.70)
합 계	23(100%)	23(100%)

나. 발급 주체 및 발급 가능 시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이용자 이용증을 발급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대부분은 주중 업무시간 내에 이용증 발급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는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관리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직장을 가진 외부이용자의 편의를 감안하면, 다소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발급의 주체는 대출실이 11곳(48%), 열람실 9곳(39%) 등으로 대부분 도서관 이용자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단 한 곳만이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에서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용증 발급 주체를 볼 때 대학도서관에서 외부이용자가 이용증을 발급받은 후 바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이용자 이용증 발급 주체는 2007년과 2010년에 소폭 변경은 있었으나 빈도에 따른 변화는 없었다.

〈표 2〉 외부이용자 이용증 발급 주체 및 가능시간(2007, 2010년 동일)

발급 주체		발급 가능시간	
대출실	11(48)	주중업무시간 내	19(83)
열람실	9(39)	주말가능	1(4)
지원과	1(4)	특정기간 ⁴⁰⁾	2(9)
기타(종합안내실 등)	2(9)	온라인신청	1(4)
합계	23(100%)	합계	23(100%)

다. 발급 조건

발급 대상과 발급 주체 및 발급 시간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발급 조건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강화되고 있었다. 〈표 3〉은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에 대한 이용증 발급 조건을 2007년과 2010년을 비교한 것인데, 2007년에 비하여 2010년에 발급 조건이 한층 강화되

40) 매년 3월 중 혹은 매주 월요일 등 각 기관에서 특정기간을 정하여 발급가능 일시를 정함.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조사결과를 보면, 기존에 이용증을 무상발급하였던 대학도서관들이 예치금을 받거나 예치금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용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변경한 기관도 있었다. 이는 대학도서관들이 외부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관리가 어려워지고 도서 미반납에 대한 우려가 커짐으로 말미암아 발급 조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외국의 대학도서관처럼 이용료제도는 정착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표 3〉 외부이용자 이용증 발급 조건

구분	2007년	2010년
조건 없음	6(26.09)	3(13.04)
예치금 ⁴¹⁾ (5~10만원)	12(52.17)	15(65.22)
이용료 ⁴²⁾ (5~10만원)	3(13.04)	4(17.39)
교직원보증	2(8.70)	1(4.35)
합계	23(100%)	23(100%)

라.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

대표적인 도서관서비스인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을 살펴본 결과, 외부이용자에게 허용하는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23개 대학도서관에서 외부이용자에 대한 평균 대출가능권수는 3.6권이었으나, 2010년에는 평균 3.4권으로 0.2권 낮아졌으며, 발급 조건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대출가능권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5〉에서 보듯이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 모두 2007년에 비해 2010년에는 상당부분 축소되었는데, 학부생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그 대우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의 경우 학부생과 동일한 대우가 전체의 44%였으나, 2010년의 경우는 16%로 30% 가까이 줄었으며, 반면에 학부생보다 낮은 대우가 전체의 76%로 2007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표 4〉 외부이용자 평균 대출권수

발급조건	2007년	2010년
조건 없음	2.3권	2.3권
예치금 납부	3.5권	3.4권
이용료 지불	5.0권	4.5권
교직원 보증	6.0권	5.0권
평균	3.6권	3.4권

41) 도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보증금 형태의 금액으로 이용증 해지시 반환됨.

42) 도서관 이용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으로 발전기금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반환되지 않는 금액임.

〈표 5〉 외부이용자 평균 대출권수 및 기간의 조건

대출권수 및 기간	2007년	2010년
학부생과 동일	10(44)	4(16)
학부생보다 낮은 대우	9(39)	17(76)
학부생보다 권수는 적으나 기간은 길다	3(13)	1(4)
학부생보다 높은 대우	1(4)	1(4)
합 계	23(100%)	23(100%)

국공립대학도서관들의 외부이용자 도서관 개방 실태 및 이용자 관리 현황을 요약하면, 외부이용증 발급 가능 지역, 이용증 발급 주체 및 발급 가능 시간의 경우 별다른 차이는 없으나, 이용증 발급 조건, 대출권수, 대출기간은 2007년과 2010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증 발급 가능 지역은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소속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며, 이용증 발급 가능 시간은 주중업무시간 내로 한정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이 전체의 83%로 2007년에 비해 변화된 바가 없었다. 그러나 이용증 발급 조건은 2007년에 비해 2010년에는 예치금을 받거나 예치금을 상향조정하는 대학도서관이 늘었고,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 대학도서관이 추가되는 등 한층 강화되었다. 발급조건은 강화되었지만 외부이용자의 대출권수는 2007년에 비해 2010년에 오히려 줄어들었고,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의 조건 역시 2007년에 비해 2010년에 해당 대학도서관의 학부생에 비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이용증 발급 가능 지역, 발급 주체 및 발급 가능 시간은 2007년과 2010년이 차이가 없어서 외견상으로는 개방이 유지되거나 확대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발급 조건과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을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개방조건이 오히려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도서관들은 외부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에 대해 점차 폐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자 했던 도서관들이 외부이용자들의 이용률 증가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용증 발급 기준의 강화라는 선택을 통해 그 부담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이용자의 발급기준 강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의 역행이냐?”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개방하던 대학도서관이 점차 제도화되어 가느냐?”이다.

지역사회 개방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도서관인 A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Ⅲ. A대학도서관 외부이용자의 이용실태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표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장의 대학도서관 외부이용자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발급조건 강화,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 축소 등 실질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폐쇄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대학도서관 개방의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본 장에서는 지역사회 개방으로 대학도서관이 직면해 있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대학도서관인 A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최근 5년간 자료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A대학도서관은 2000년부터 외부이용자에게 이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A대학도서관이 외부이용자에게 개방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이용증을 발급받은 외부이용자 전체(3,202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A대학도서관의 이용증 발급 지침을 보면, 발급 가능 지역은 대학 소재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고생 이상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치금 5만원을 받은 후 발급하고 있으며, 해지 시에는 예치금을 돌려준다. 발급 후 6개월 이내에는 해지가 불가하며, 해지 후 1년 이내에 재가입이 불가하다.

1. 외부이용자의 현황과 특성

A대학도서관 외부이용자의 현황과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발급 연령과 이용자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이용증 해지유무 및 해지한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기간을 성별, 연령 및 이용자유형 등의 이용자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가. 외부이용자의 특성

A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이용증을 발급받은 총 3,202명을 대상으로 성별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1,474명(46%)이고 여성이 1,728명(54%)으로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다.

이용증을 발급받은 외부이용자의 유형은 A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등에 재학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1,631명(51%)이고, A대학과 관계가 없는 일반이용자가 1,571명(49%)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6>에 보듯이 이용증 발급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20대가 전체의 약 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40대, 50대 순이고, 이용증 발급 연령의 평균은 약 30.8세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가 거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학 졸업 후 많은 이용자들이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의 대상이 된 A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 현황을 요약하면, 이용증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약간 더 많았으며, 발급 연령은 20대, 30대 이용자가 전체의 87%로 대부분을 차지

했다. 또한 외부이용자의 반 정도는 A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동문으로서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이다.

〈표 6〉 연령별 현황

연령	인원	평균	표준편차
10대 이하	46(1.4)	30.8세	7.48
20대	1,906(59.6)		
30대	925(28.9)		
40대	247(7.7)		
50대	59(1.8)		
60대 이상	15(0.5)		
합계	3,198(100%) ⁴³⁾		

나. 외부이용자의 이용증 해지유무

A대학도서관에서 이용증을 발급받은 3,202명 중에서 이용증을 유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56% 정도인 1,787명이었으며, 나머지 1,415명(44%)은 이용증을 발급한 후 해지하였다. 발급 후 해지자의 대부분은 최초 발급 후 해지하였으나, 22명은 재발급 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A대학도서관에서 이용증을 발급받은 외부이용자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는 발급 후 이용을 중지하였다. 이와 같이 발급 및 잦은 해지는 도서관 업무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이용증 해지유무를 분석하기 위해 성별 및 이용자유형, 연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용증 해지유무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발급은 남성(46%)보다 여성이 약간 더 높지만(54%),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지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많기는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표 7〉 성별로 본 해지유무

구분		해지유무		전체
		미해지	해지횟수	
성별	남성	833(56.5)	641(43.5)	1,474(46)
	여성	954(55.2)	774(44.8)	1,728(54)
전체		1,787(55.8)	1,415(44.2)	3,202(100%)

이용자유형에 따른 이용증 해지유무를 보면, 〈표 8〉에 나와 있듯이 A대학 재학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발급 후 약 47%가 이용증을 해지하였으나, 순수 외부이용자는 약 42%가 해지하여 A대학 재학 경험자가 그렇지 않은 외부이용자에 비해 더 많이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이용증을 발급받은 3,202명 중에서 연령 확인이 어려운 4명을 제외한 수치임.

〈표 8〉 이용자유형별 해지유무

구 분		해지유무		전체
		미해지	해지	
이용자 유형	A대학 재학 경험자	869(53.3)	762(46.7)	1,631(50.9)
	순수 외부이용자	918(58.4)	653(41.6)	1,571(49.1)
전체		1,787(55.8)	1,415(44.2)	3,202(100%)

이용증 해지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차이는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표 9〉를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증 해지가 많다. 특히 10대의 경우 발급인원의 약 61%가 해지하였다. 20대 역시 발급인원의 약 47%가 해지하였으며, 6개월 이내 해지 불가 규정을 감안하면 그 수치는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발급 후 해지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외부이용자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10대에서 30대까지의 연령은 대학입학 및 취업 등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도 많지만 동시에 해지도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표 9〉 연령별 해지유무

구 분		해지유무		전체
		미해지	해지	
연령	10대	18(39.1)	28(60.9)	46
	20대	1,003(52.6)	903(47.4)	1,906
	30대	557(60.2)	368(39.8)	925
	40대	156(63.2)	91(36.8)	247
	50대	41(69.5)	18(30.5)	59
	60대 이상	11(73.3)	4(26.7)	15
전체		1,786(55.8)	1,412(44.2)	3,198(100%)

이용자 특성에 따른 A대학도서관의 이용증 해지유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성별에 따른 해지 비율은 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A대학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순수 외부이용자보다 발급 후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증을 해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용증 해지자의 도서관 이용기간

A대학도서관에서 이용증을 발급받은 후 이용증을 유지하고 있는 지속적인 이용자 1,787명을 제외하고 이용증을 해지한 1,415명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지 전의 도서관 이용기간을 조사하였다. 이용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도서관 이용기간으로 간주하여 조사하였다. 〈표 10〉에서 보듯이 약 43%의 이용자가 발급 후 1년 안에 이용증을 해지하였으며, 2년 내에 전체의 76%의 이용자가 이

용증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증 해지자의 이용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571일(1년 7개월)이며, A대학도서관이 이용증 발급 후 6개월을 의무사용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외부 이용증을 발급하여 이용하는 상당부분의 이용자가 단기적인 이용목적을 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도서관 이용기간을 분석하기 위해 성별 및 이용자유형, 연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도서관 이용기간은 평균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은 평균 566일을 이용하였고 남성은 평균 576일을 이용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10일 정도 더 짧은 기간 이용증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1년 이내에 이용증을 반납하는 단기적인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4% 정도 더 높았다. 이용기간으로 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이 도서관에 더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성별로 본 이용기간

구분	이용기간						전체	평균	
	1년이하	2년	3년	4년	5년	5년이상			
성별	남성	259(40.7)	224(35.2)	73(11.5)	39(6.1)	20(3.1)	22(3.5)	637(45.3)	576일
	여성	341(44.3)	248(32.2)	87(11.3)	51(6.6)	19(2.5)	24(3.1)	770(54.7)	566일
전체	600(42.6)	472(33.5)	160(11.4)	90(6.4)	39(2.8)	46(3.3)	1,407(100%)	571일	

이용자 유형에 따른 이용기간의 차이는 〈표 11〉에서 보듯이 A 대학 재학 경험자는 순수 외부이용자에 비해 단기적인 이용자, 즉 1년 이내로 이용한 이용자수가 많았다. 그러나 평균 이용기간을 보면 A 대학 재학 경험자의 이용증 해지가 더 많았음에서 불구하고 순수 외부이용자는 평균 566일이었으며, A대학 재학 경험자는 575일로 A대학 재학 경험자의 이용기간이 평균적으로는 약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이용자유형별 이용기간

구분	이용기간						전체	평균	
	1년이하	2년	3년	4년	5년	5년이상			
이용유형	A대학 재학 경험자	334(44.0)	241(31.8)	91(12.0)	45(5.9)	19(2.5)	29(3.8)	759(53.9)	575일
	순수 외부이용자	266(41.0)	231(35.6)	69(10.6)	45(6.9)	20(3.1)	17(2.6)	648(46.1)	566일
전체	600(42.6)	472(33.5)	160(11.4)	90(6.4)	39(2.8)	46(3.3)	1,407(100%)	571일	

연령에 따른 이용기간을 살펴보면, 생활의 변수가 가장 많은 20대가 평균 545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571일에 비해 26일이나 짧았다. 또한 발급 후 1년 이내에 해지하는 이용자

중에서 20대는 47%로 매우 높았으며, 2년 이내에는 20대 발급인원의 79%가 이용을 중지하였다. 다음으로 10대의 75%, 30대의 72%, 40대의 70%의 순으로 2년 이내에 이용을 중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2년 이내에 이용증을 해지하는 이용자는 72%이지만 1년 이하 단기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어 평균 이용기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연령별 이용기간

구분	이용기간						전체	평균	
	1년이내	2년	3년	4년	5년	5년이상			
연령	10대	10(35.7)	11(39.3)	2(7.1)	2(7.1)	3(10.7)	-	28	576일
	20대	423(47.1)	284(31.6)	96(10.7)	48(5.3)	19(2.1)	29(3.2)	899	545일
	30대	120(32.9)	144(39.5)	47(12.9)	30(8.2)	11(3.0)	13(3.6)	365	617일
	40대	35(38.9)	28(31.1)	12(13.3)	7(7.8)	4(4.4)	4(4.4)	90	630일
	50대	8(44.4)	4(22.2)	3(16.7)	2(11.1)	1(5.6)	-	18	579일
	60대이상	2(50.0)	1(25.0)	-	-	1(25.0)	-	4	668일
전체	598(42.6)	472(33.6)	160(11.4)	89(6.3)	39(2.8)	46(3.3)	1,404	571일	

A대학도서관 외부이용자 중에서 이용증을 해지한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도서관 이용기간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해지횟수도 많고 이용증을 유지한 기간도 짧았다. 또한 A대학 재학 경험자가 순수 외부이용자에 비해 단기적인 이용자, 즉 1년 이하로 이용한 이용자수가 많았다. 또한 발급 후 1년 이내에 해지하는 단기이용자는 20대가 가장 많아서 20대 이용자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47%가 1년 이내에 이용증을 해지하였으며, 이 수치는 1년 이내에 해지하는 전체 이용자수의 71%에 해당된다. 도서관 개방에 있어 이들 신분 및 연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외부이용자의 자료이용

대학도서관에서 외부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도서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든 도서관의 대표적 서비스라 할 수 있는 대출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A대학도서관에서 연간 도서 대출을 1회 이상 이용한 비중복 대출자수를 나타내는 연간 이용자 통계 및 신분별 연간 대출권수와 대출권수 대비 연체율, 주요 대출분야를 분석하였는데,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해 최근 5년간 통계를 분석하였다.

최근 5년간 연간 도서 대출을 1회 이상 이용한 비중복 대출자수를 나타내는 도서관 이용자수는 〈표 13〉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전체 대비 학부생의 경우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부이용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에는 전체의 2.2%였던 이용자수가

2009년에는 5.5%까지 상승하였으며, 매년 외부이용자의 대출자수는 200~300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신분별 도서관 이용자 통계

구분	외부이용자	학부생	기타	전체
2005년	401(2.2)	14,850(80.4)	3,214(17.4)	18,465(100%)
2006년	732(3.4)	17,252(79.0)	3,857(17.7)	21,841(100%)
2007년	1,102(4.6)	18,456(77.0)	4,416(18.4)	23,974(100%)
2008년	1,300(5.1)	19,165(74.8)	5,148(20.1)	25,613(100%)
2009년	1,538(5.5)	19,556(69.3)	7,114(25.2)	28,208(100%)

〈표 14〉를 보면, 도서 대출권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부생에 비해 외부이용자의 증가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5년에는 〈표 13〉의 이용자 비율(2.2%)과 같은 2.2%로 시작하였으나, 2009년에는 이용자 비율(5.5%) 보다 훨씬 높은 7.4%로 상승폭이 커졌다. 또한 1인당 대출권수에 있어서는 2005년 외부이용자와 학부생은 각각 14권이었으나, 2009년에는 외부이용자는 1인당 20권 이상 대출하였고, 반면 학부생은 15권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비록 아직까지는 전체에 대비해 볼 때 10% 미만의 적은 수치이나 매년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예산 및 인력의 증가를 단시간 내에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신중히 고려하고 대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표 14〉 신분별 도서 대출권수

구분	외부이용자	학부생	기타	전체
2005년	5,621(2.2)	200,993(78.2)	50,255(19.6)	256,869(100%)
2006년	13,840(4.1)	257,244(76.7)	64,478(19.2)	335,562(100%)
2007년	19,653(5.2)	285,726(75.1)	75,099(19.7)	380,478(100%)
2008년	27,044(6.5)	305,336(73.4)	83,660(20.1)	416,040(100%)
2009년	31,247(7.4)	297,056(70.3)	94,322(22.3)	422,625(100%)

〈표 15〉의 신분별 대출권수 대비 연체율은 학부생보다는 외부이용자의 연체율이 낮게 나타났다. 학부생은 매년 20% 수준이며 외부이용자는 15% 정도이다. 그러나 외부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및 대출권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연체권수의 절대적 수치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업무 부담을 가중할 것이며 도서관은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표 15〉 신분별 대출권수 대비 연체율

구분	외부이용자	학부생	기 타	합 계
2007년	3,340(17.0)	61,910(21.7)	12,213(16.3)	79,492
2008년	4,107(15.2)	60,800(20.0)	11,757(14.1)	76,664
2009년	4,720(15.1)	60,198(20.1)	14,574(15.5)	77,463

외부이용자 및 학부생이 주로 많이 대출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외부이용자와 학부생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표 16〉에서 보듯이 최근 3년간 학부생, 외부이용자 모두 문학 분야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문학류를 제외하면 학부생은 법학, 경영학, 경제학 등을 주로 이용한 반면, 외부이용자들은 영어, 교육학, 경제학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어는 토익 및 토플 관련 도서이며, 교육학은 임용고시 관련 도서, 경제학은 7급, 9급 공무원 시험 관련 도서들이 포함된 분야이다. 즉 외부이용자들이 대학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목적은 소설류를 읽기 위한 것과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16〉 신분별 주요 대출분야

구분(순위)	외부이용자			학부생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1	문 학	문 학	문 학	문 학	문 학	문 학
2	영 어	영 어	경제학	법학	법학	경영학
3	교육학	경제학	영 어	경영학	경영학	법학
4	경제학	교육학	교육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외부이용자의 자료이용 실태를 정리하면, 매년 외부이용자수는 200~300명씩, 대출권수는 600~800권씩 증가하고 있다. 학부생은 2005년 14권에서 2009년 15권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외부이용자 1인당 대출권수는 2005년 14권에서 2009년에는 20권으로 증가하였다. 외부이용자가 주로 대출하는 분야는 소설을 제외하면 영어, 교육학, 경제학 등 자격시험 준비 및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도서가 주를 이루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A대학도서관 외부이용자의 이용실태는 크게 외부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증 발급 및 해지 등 가입 특성과 가입 후 이용하는 이용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도서관 가입 특성에 나타난 외부이용자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용증 발급 후 거의 반에 가까운 44%의 이용자가 이용증을 해지하였으며, 그 기간도 짧아서 해지자 중에서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가 43%에 달하며 해지한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기간은 평균 약 1년 7개월 정도였다.

해지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지만, A대학 재학 경험자가 순수 외부이용자에 비해 단기적인 이용자, 즉 이용증 발급 후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발급 후 1년 이내에 해지하는 단기이용자는 20대가 가장 많아서 20대 이용자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47%가 1년 이내에 이용증을 해지하였으며, 이 수치는 1년 이내에 해지하는 전체 이용자수의 71%에 해당된다. 실제로 20대는 이용증 발급의 가장 대표적인 연령층으로서 외부이용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잦은 발급 및 해지, 짧은 이용기간 등은 대학도서관의 업무가중, 일차적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는 대학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점차 폐쇄적으로 변모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도서관 개방에 있어 이들 신분 및 연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 특성을 살펴보면, 대출자수가 연 200~300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건수는 그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연체건수의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1인당 대출권수는 학부생의 경우 지난 3년 사이에 14권에서 15권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외부이용자의 경우에는 14권에서 20권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요 대출 분야는 문학류를 제외하면 영어, 경제학, 교육학 분야로 자격취득 및 공무원 시험을 위한 자료를 대부분 대출하고 있어, 공공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유형의 자료들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수한 전문 학술자료의 개방으로 지식정보격차를 줄이고자 했던 당초 개방의 취지와는 다른 양상의 자료이용 모습을 보이고 있다.

IV. 외부이용자 제도의 개선방안

본 연구는 지역사회 개방으로 대학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하여 대학도서관 개방요구, 개방현황, 개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초기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외부이용자에 대한 대학도서관 개방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개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개방이 아닌 유료정보서비스로의 추세가 두드러졌다.

둘째,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에 대한 개방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대학도서관 개방의 역사가 비교적 오랜 대부분의 외국 대학도서관들은 외부이용자를 서비스대상에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부이용자는 대출을 위하여 별도의 대출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대출증 발급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신분과 따라 다양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해지시에 예치금을 돌려주는 예치금제도를 사용하는 도서관은 없었다. 또한 조사대상중의 일부 도서관은 다른 곳에서 입수할 수 없는 자료

의 이용이나 연구 목적의 이용 등, 대학도서관에서만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할 때 이용할 것을 유도하거나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 국립대학도서관의 개방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국내 도서관은 주로 예치금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에서 도서관 발전기금 명목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학도서관 개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7년에 비해 2010년에는 대학도서관들의 외부이용자 발급 범위는 기존 범위를 유지하였으나 발급에 따른 규제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증 발급시 예치금 비용은 상향 조정하였으나,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 등 이용자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2007년에 비해 상당부분 축소되어 있어서 개방의 초기보다 오히려 폐쇄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셋째, 국내 대학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대학도서관인 A대학도서관 외부이용자의 이용실태를 외부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증 발급 및 해지 등 가입 특성과 가입 후 이용하는 자료이용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도서관 이용증 가입 특성에 나타난 외부이용자들의 문제는 잦은 발급 및 해지, 짧은 이용기간 등으로 대학도서관의 업무 가중, 소속 이용자들의 불편 가중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대학도서관이 점차 폐쇄적으로 변모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부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 특성에 나타난 문제는 이용률 증가로 인한 도서관 업무의 가중과 대학도서관 개방에 부합하지 않은 자료의 이용이다. 외부이용자의 도서관 이용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표적 서비스인 대출건수는 그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요 대출 분야는 문학류를 제외하면 영어, 경제학, 교육학 분야로 자격취득 및 공무원 시험을 위한 도서를 대부분 대출하고 있어, 대학도서관만이 제공할 수 있는 폭넓은 학술자료의 개방으로 인한 지식격차의 차이를 줄이고자 했던 당초 취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의 일차적인 설립 목적은 소속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학술연구 지원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도서관법에서는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도서관법 제7조 3항)고 명기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소속 대학 구성원에 국한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까지 이용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를 위해 소속대학 이용자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의 효과적인 개방을 위해서는 A대학도서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문제점 즉, 잦은 발급 및 해지, 지속적인 이용률 증가, 치우친 자료 이용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대학 구성원인 내부이용자와 외부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상의 결과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외부이용자에 대한 회원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조건 없는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A대

학도서관의 예에서와 같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예치금 제도는 예치금의 현실화가 어려우며, 발급뿐만 아니라 해지라는 별도의 업무가 부가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업무 가중의 주요 요인이 된다. 또한 예치금의 납부는 외부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 이용요금으로 인식하게 하지만, 사서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둘 사이의 인식 차이로 도서관서비스에 있어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조건 없는 도서관 자료 대출 및 예치금 제도는 외부이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서비스로 전락해 도서관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서들은 사서들대로 업무가중으로 인해 불만을 갖게 되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 회원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연회비의 납부는 외부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외부이용자가 아닌 내부이용자로서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서들 또한 외부이용자를 적극적인 서비스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회원제도 도입은 정제된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으로 도서관 개방의 목적에 맞는 양질의 정보를 대학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 이용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제는 이용자의 신분 및 이용범위를 다양화해서 이용자가 신분과 이용범위에 따른 이용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서관법에도 제시되어 있는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회원제의 목적은 양질의 자료를 꼭 필요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이지 대학도서관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학술정보획득 및 연구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필요로 하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운 계층은 이용요금과 관계없이 대학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자원공용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은 일반 수험자료의 이용에 앞서 전문 학술정보자원의 이용이라는 중요한 명제를 가지고 있다. 외부이용자의 대학도서관 이용이 단순히 소설류를 읽거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도서의 대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이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대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지역주민의 전문적 정보요구를 감당하고, 외부이용자에 대한 연구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외부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도서관에서의 이용자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용자 교육은 외부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도서관 이용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서관 직원의 업무에 있어서도 단순 업무의 비중이 감소되므로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이용 연장 및 개인정보 변경, 공지사항 확인 등 많은 부분이 인터넷 상에서 직접 이용이 가능하나, 외부이용자의 경우 단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이용자의 입장에서나 사서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가져오고 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용증 발급시에 충분한 이용자 교육을 통해 외부이용자가 도서관 이용에 있어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주체가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외부이용자에 대한 출입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많은 국공립대학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에 있어서는 약간의 통제를 하고 있으나, 도서관 출입에 있어 자유로운 출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출입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초중고생의 무분별한 출입 및 외부이용자들의 잘못된 도서관 이용 습관으로 인해 도서관 내의 학습 분위기가 침해되고 구성원들의 불만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도서관 이용에 대한 자유는 보장하나 본인의 책임을 위한 도서관 출입 관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외부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대학도서관은 다른 관종의 도서관에 비해 전문 학술자료에서부터 일반 교양자료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와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자유로운 이용은 정보 빈곤층과 부유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된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은 도서관 개방으로 인한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증가시켜 개방의 원래의 의미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개방의 필요성은 현시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만큼, 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이미 개방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 이용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개방으로 인해 대학도서관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개방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의견상으로는 개방이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일부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발급에 따른 조건은 강화되고 있다. 즉 이용증 발급시 비용은 상향 조정하였으나,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 등 이용자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축소하여 시간이 가면서 개방에 오히려 폐쇄적이 되어가고 있다. A대학도서관의 예에서 보자면, 개방으로 대학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용증의 잦은 발급 및 해지, 짧은 이용기간 등인데, 이런 문제들이 대학도서관이 점차 폐쇄적으로 변모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방으로 인한 사서들의 업무 가중과 내부구성원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야기된 현상이라 하겠다.

또 하나의 문제는 외부이용자들의 이용률 증가로 인한 도서관 업무의 가중과 대학도서관 개방에

부합되지 않는 치우친 자료의 이용이다. 외부이용자의 도서관 이용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표적 서비스인 대출건수는 그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지만, 주요 대출 분야는 문학 분야를 제외하면 영어, 경제학, 교육학 분야로 자격취득 및 공무원 시험을 위한 도서를 주로 대출하고 있어, 대학도서관의 폭넓은 학술자료의 개방으로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실에 근거한 대안으로 외부이용자에 대한 회원제 제도의 도입,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자원공용을 위한 협정 체결로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역할 분담, 외부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교육 강화, 외부이용자에 대한 출입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공립대학도서관 중에서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외부이용자의 가입 및 자료 이용과 관련된 특성은 국공립대학도서관인 A대학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도서관에 확대해서 적용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은 언젠가 조건없는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내부 구성원과 외부이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서관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